

# 5월 영령들 내년부터 제 2묘역에 안장한다

■국립 5·18민주묘지 묘역 위치도



**‘봉분형’ 제1묘역, 779기 중 37기 남아 ‘포화’ 압박  
화장뒤 평장방식 제2묘역, 1028기 안장 10년 수용 가능  
안장 대상 4634명...향후 2000기 이상 추가 묘역 필요**

내년부터 5·18민주유공자 영령들은 국립 5·18 민주묘지 제2묘역에 안장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7년 조성된 제1묘역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서다. 17일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제1묘역의 전체 수용 안장 기수는 모두

779기로 이날 현재 모두 742명의 5월 영령들이 안장돼 있다. 현재 수용 가능한 인원은 37기다. 민주묘지관리소는 올해 또는 내년 상반기 초 제1묘역이 만장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1묘역은 지난 1997년 국립 5·18 민주

묘지 완공과 함께 만들어졌다. 1기당 면적은 10㎡로 매장한 뒤 봉분을 올리고 상석과 비석을 놓는 형태다. 앞서 제2묘역은 지난 2011년 제1묘역과 겹쳐서 5분 거리에 있는 송모루와 후문 일원에 1만6000㎡ 규모로 조성됐다. 순수 묘역 규모는 5470㎡이며 좌우 대칭 10개 공간에 모두 1028기를 안장할 수 있다. 인근에는 참배광장과 헌수비, 녹지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기존 묘역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친화적인 공원형태로 조성했다”는 게 민주묘지관리소의 설명이다. 특히 제2묘역은 기존 제1묘역과 달리 1

기당 3.3㎡ 규모에 시신을 화장한 뒤 봉분을 만들지 않고 유골을 평평하게 매장하는 평장 방식으로 5월 영령들을 안장하게 된다. 제2묘역은 앞으로 10년 이상 5월 영령들을 안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18 민주항쟁 제6차 보상 기준(지난 2013년 6월) 국립 5·18 민주묘지 안장 대상자는 5·18 당시 사망자 155명, 행방불명자 81명, 상이 후 사망자 110명, 상이 및 연행·구급자 4288명 등 4634명이다. 현재 제7차 보상이 진행중인 것을 감안하면 안장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1·2묘역을 감안해도 향후 2000기 이상 규모의 추가 묘역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수만 민주유공자유족회 전 회장은 “제2묘역은 제1묘역 보다 지형적으로 더 좋은 위치에 있다”며 “5·18 민주묘지를 공원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 13명, 2013년 20명, 2014년 17명, 지난해 34명 등 최근 4년 동안 84명의 5월 영령이 5·18 민주묘지에 안장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임 행진곡’ 논란속 주목받는 윤상원

박기순 열사와 합동묘 추모 발길 이어져

5·18광주민주항쟁의 상징이자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인 윤상원·박기순 열사 합동묘에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오전 광주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1묘역 4-13 윤상원·박기순 열사의 합동묘 앞에 ‘오월길 역사기행’에 나선 광주 진만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5·18 해설사로부터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 열사와 1979년 들불야학을 운영하다 숨진 노동운동가 박 열사의 ‘아름답고도 슬픈 결혼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또 이들의 영혼결혼식에 연

정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유래를 듣고, 이 노래가 한국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대표 노래로 자리매김한 과정을 들었다.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넋들을 향해 “고맙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거부하면서 이날 윤 열사의 묘소에는 참배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광주 용봉중학교 3학년 김혜원(16)은 “5·18과 윤상원 열사,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 알고 있다”며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쌓아올린 추모의 마음

17일 광주시 북구 망월동 구 묘역에 추모객들이 직접 글을 쓴 돌들로 쌓아 올린 돌탑이 5월의 햇볕을 받고 있다. 돌들은 옛 전남도청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조성하는 공사현장에서 수집한 것들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임을 위한 행진곡’ 영화로 제작

화순 출신 박기복 감독 독립영화로...내년 5월 개봉 예정

‘임을 위한 행진곡’이 독립영화로 재탄생한다. 화순 출신의 영화감독이 초저예산 영화로 제작하며, 영·호남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도 기대하고 있어 화합의 메신저 역할도 기대된다. 17일 광주시와 5월 단체 등에 따르면 영화사 ‘단풍’(대표 구만석)은 5·18 제36주년 전야인 이날 항쟁의 중심지였던 금남로에서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크랭크인했다. 이 영화는 지난 2013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최 창작스토리기획개발 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을 바탕으로 제작된다. 1년의 제작 기간을 거쳐 내년 5월 개봉 예정이다. 시나리오 작가이자 공모전 당선작가인 박기복(54) 감독의 장편영화 데뷔작이기도 하다. 여주인공 ‘희수’역은 배우 이하나

가 맡는다.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항쟁 당시 머리에 총알이 박힌 채로 수 십년간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한 어머니와 개그맨 딸의 애증 관계를 그리고 있다. 1989년 5월 조선대 이철규 열사의 의문사를 1980년으로 소급해 두 역사적 사건의 시간과 공간을 결합한 독특한 구조를 지녔다는 점에서 ‘광주’ 또는 ‘5·18’을 소재로 한 기존 영화와 사뭇 다르다. 가족을 중심에 놓고, 5·18과 광주정신을 매개로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보여주겠다는 게 제작진의 포부다. 박 감독은 화순 출신으로 광주 진흥고, 서울예대를 졸업한 뒤 한일공동영화 ‘피그말리온의 사랑’, 영화 ‘강아지 죽는다’,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각본을 썼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시대 아픔 함께 나는 5·18 전야제

세월호 유가족·백남기씨 가족 등 초대

광주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노동자, 농민, 청년들을 품에 끌어안았다.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열린 제36주년 5·18광주민주항쟁 전야제에는 소외받고 핍박받는 우리 이웃들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416가족협의회 유경근(에은아빠) 집행위원장, 김성욱(조원아빠) 세월호 희생교사 가족대표, 정성욱(동수아빠) 선체인양분과장 등 세월호 관련 15명이 초대받았다. 또 지난해 11월14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6개월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보성 출신의 농민 백남기씨의 아내 박경숙씨와 자

녀 민주화, 도라지씨가 함께했다. 세월호 가족과 백남기씨 가족들은 17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된 ‘2016년 민주대행진’에 참가, 5·18 유족 등 관계자들과 광주공원, 광주교, 광주세무서, 총장파출소, 금남로로 이어지는 거리를 함께 걸었다. 이들은 이날 전야제를 함께 지켜보며 세월호 진상규명과 백남기씨 물대포 사건 책임을 처벌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이날 전야제에서는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서울시장 옆 건물에서 300일 넘게 고공 시위를 하고 있는 기아차 화성공장 노동자 최정명·한규협씨가 영상 생중계되기도 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교육부, 5·18 왜곡 교과서 보완 교사용 참고서 배포

교육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축소했다는 지적이 일었던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교과서를 보완하기 위한 교사용 참고 자료를 새로 제작,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교육부는 최근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중 5·18 민주화운동 부분을 보완한 교사용 학습자료를 마련해 전국 학교에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사용이 마련한 교사용 참고자료는 ‘5·18 민주화 운동의 전개과정’을 새로 담았다. ‘계엄령 전국 확대와 휴교령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던 전남대 학생들이 계엄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합류하면서 시위가 확산됐다’는 내용과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시민군을 결성해 계엄군에 맞섰고 계엄군이 물러가자 시민들은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 스스로 질서를 유지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도청에 남아있던 시민군이 탱크와 헬기를 동원한 계엄군에 의해 진압됐고 많은 시민이 희생당했다’는 게 포함됐다. 앞서, 초등 6학년 사회과 교과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기술하는 대목에서 ‘계엄군’, ‘정변’ 용어와 관련 사진을 누락하고 계엄군의 학살행위와 대규모 항쟁의 인과 관계를 뒤바꿔놓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앞서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에 5·18 민주화운동이 축소·왜곡됐다는 지적이 일자 5·18 역사왜곡대책위에 유감의 뜻을 전하고 교사용 참고자료 등으로 이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전국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5·18 계기교육에 5·18 재단이 개발한 활동지를 사용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기로 했다. /김형호기자 khh@

2017년 1월, 드디어 순천에 전문 쇼핑센터가 찾아옵니다!  
**순천만 플라자와 성공을 함께 할 사장님(운영주)을 모십니다.**

※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43-2 일대

- ✓ **풍부한 배후인구**  
3km권 내 거주민 5만 여명 외 해룡산업단지, 선월하이파크단지 위치로 잠재고객 풍부
- ✓ **편리한 접근성**  
동순천IC, 신대 교차로 인접으로 광양, 여수에서 접근 용이
- ✓ **체계적인 운영·관리**  
상업시설 전문 개발팀의 노하우 보유

**층별구성**

3F	라이프스타일
2F	키즈용품
1F	패션, 잡화
B1	패션, 식음

- 입점문의 : 070 - 7626 - 0228
- 모집기간 : 2016. 05.19 ~ 24
- ※ 영업면적 최소 100㎡ 운영 가능자, 가맹점주 우대